

자유 기고문

평양과기대의 설립 의의와 진행 현황

송재호

연변과학기술대학교

평양과학기술대학(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UST)은 지난 5년간의 건축을 1단계 완성하고 드디어 2008년 개교를 앞두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대학원(School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ICT) 등 3개의 대학원 석사과정을 시작으로 한국과 해외의 대학, 기업, 연구소들의 많은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전자과학회에 대학을 소개하며, 그 설립의의와 진행 현황을 나누고자 합니다.

I. 평양과기대 설립의 목적과 의미

1-1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세워집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한반도 분단 60년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민족 화해와 상호 번영을 목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대학입니다. 이곳은 남북의 교수 학자뿐만 아니라 재외 동포 학자, 기업인들이 함께 만나서 일하는 민족 동질성 회복의 장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래 동안 갈라져 있던 두 체제가 서로 만나서 함께 배우며 일할 수 있는 중간 지대가 됨으로써 통일로 가는 지름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2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북한 사회의 국제화를 돕습니다.

현재 북한은 국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국제 관행을 이해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인적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북한의 지도계층이 국제 사회의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장차 통일 시대에 함께 일할 청년 인재들을 배양하며, 장래 지도자로 성장할 남북 학생들 간의 인적 교류를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1-3 평양과학기술대학은 북한 경제의 자립을 돕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의 교과 내용은 군사적 목적 또는 첨단 과학 분야 같은 민감한 분야가 아니고 남북한의 경제 협력이 가능한 실용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와 전자 산업 분야 그리고 북한 사회가 국제 무역과 사업 관행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Industrial Management 분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식품 분야, 북한의 노후한 인프라를 재건할 토목과 건축 분야 등입니다. 북측 경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일과 두 체제가 함께 만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1-4 평양과학기술대학은 학술 교류를 통해 동북아시아 평화를 도모합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은 학술 대회 개최나 교환 교수 프로그램, 그리고 교환 학생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북한에 남한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특히 학생들과 교수들의 교류를 시작으로 장래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학술 협력 체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이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미 중국 내에 세워진 중외합작 국제대학이 바로 연변과학기술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이 낳은 열매로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에 알맞은 복합형 인재 양성의 꿈을 가지고 세워진 중국 최초의 4년제 본과 중외합작대학입니다. 세계 13개국 이상에서 몰려든 유수의 석박사 교수진들에 의해 국제화·개방화의 선봉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학이며, 창의성과 봉사 정신으로 무장된 인재들을 배출하여 중국이 세계화의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세워진 국제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통해 배출된 졸업생들이 중국 대륙을 향해 퍼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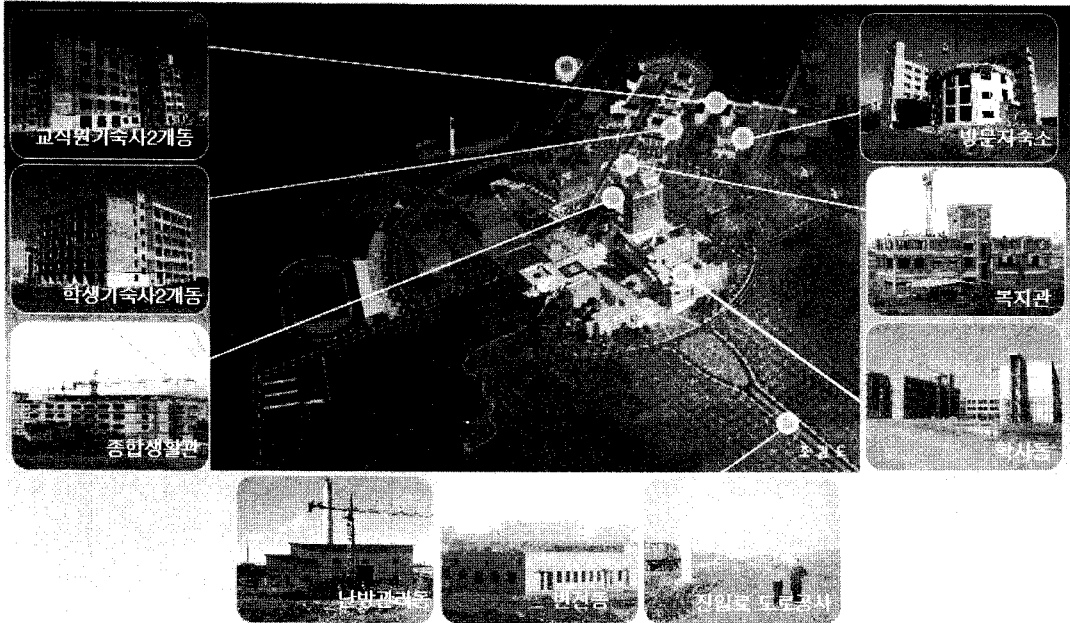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많은 기업에서 서로 앞 다투어 뽑아가려는 대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학의 졸업생들이 중국과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며, 동아시아의 평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교육 혁신의 모델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과기대는 바로 15년간의 연변과기대의 Model 과 Know-how 위에 세워지는 대학입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많은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연합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II. 진행 상황

### 2-1 어떻게 북측에서 PUST 설립을 허가했는가?

# 10개동 건물 건축 완공예정 2007/12



지난 15년간 연변과기대가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 훌륭하게 대외 개방적인 국제적 인재를 양성하여 기여한 열매가 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오래 동안 연변과기대를 면밀히 관찰하여 왔습니다. 수시로 학자들을 보내어 함께 지내면서 연변과기대의 상황을 이해하였으며, 중국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인재들을 양성하여 인정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특별히 김정일 위원장의 북경, 상해 방문 이후, 북한 내부에서도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고, 현실적으로 대외 협상을 이끌만한 국제 감각을 지닌 선진 지식인 인재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자, 연변과기대 김진경 총장을 통해 먼저 대학 설립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 2-2 현재 어떻게 공사가 진행 중인가?

연변과기대 건설본부의 직원 10여명과 중국 연변의 항달건축유한공사의 건설 기술자 80여명이 파견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북측에서는 700명 가까운 청년 노동자들을 제공하여 공사를 돕고 있습니다. 제 1단계 공사를 통해 학사동 건물과 식당 기숙사 3동 그리고 파워플랜트 등 6개동이 완성 단계에 들어가, 2008년 중에 개교를 목표로 있습니다.

## 2-3 미국과의 관계는 문제없는가?

많은 분들이 미국 행정부의 보수적인 대북 정책과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평양과기대로 인하여 미국의 북에 대한 강경 정책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와 화해의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평양과기대는 순수 교육 사업이며, 북한 젊은이들을 교육시킴으로써 북한 사회의 평화적인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득한 결과, 미국 상하 양원과 행정부에서도 덕적인 지원(moral support)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라도 평양과기대의 설립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United

Board라는 NGO 단체를 통해 평양과기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 달러 4만 불을 직접 북한에 송금 허가한 사실이 미 행정부의 태도와 입장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Ⅲ. 통일 시대를 향한 시대적 사명의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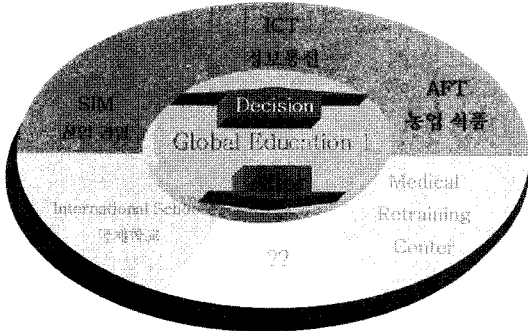
### 3-1 평양과기대 설립과 통일이 무슨 관련이 있나?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통일은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필요한 인재가 서로의 체제와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착실히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이 같은 준비 작업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져 갈 때 양쪽 사회의 불안 요소와 불신감을 점차 줄여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일 시대에서 일할 수 있는 핵심 인재를 각 분야의 전문가로 미리 준비시켜야만 통일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서로가 더 이상 반목하는 관계가 아닌 형제와 동역자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비로소 통일이 그 문을 열 것입니다.

### 3-2 역사적 고찰과 전망

통일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반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각종 정치·경제 및 사회의 사건 사고의 열기는 끊임없이 전 세계의 뉴스거리로 퍼져 나갑니다. 그것은 비록 각기 모양은 다를지라도 분단의 가로막힘을 괴로워하며 뒤틀리는 민족 공동체의 몸부림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통일을 향해 뿔어내는 민족 에너지의 변형된 양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열역학적 용어로 분석하면 통일은 비가역적(非可逆的) 반응이요, 이미 예정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통일은 불가피한 것이기에 우리는 대비해야만 합니다.

## 1+2 프로그램(대학원 석사과정)



### 3-3 평양과기대는 통일세대를 준비하는 작업

한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 이 시대와 민족의 역사 앞에서 좀더 깊은 책임감을 지니도록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통일 문제는 지나간 시대의 몫이라기보다는 앞으로 통일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젊은 세대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평양과기대는 남북한의 청년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책임감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왜곡되었던 우리의 근대사를 바로 펴고 장차 후손들에게 떳떳한 통일 국가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평양과기대가 선봉에 설 것입니다.

## IV. 결 어

북측 정부가 큰 결심과 결단으로 평양과기대 설

립을 허가함으로써 남북한 교류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더구나 대학의 교수 인사권과 운영권을 위임하고,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북한 내각의 결의 하에 100만 평방미터의 대지를 등기까지 하여 준 것은 북측 정부의 결의와 의지를 더욱 짐작케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학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의 젊은이들을 국제화 시대에 알맞은 인재로 배양시켜 달라는 시대적 요청이 담긴 것입니다.

이제 남북한 교류의 큰 획을 긋고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이 역사적 과제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이 절호의 기회를 잘 살려서 평양에 아름다운 대학을 짓고 진정으로 남북이 함께 공존 번영하며 평화통일로 가는 청경을 열어야겠습니다. 평양과기대가 지어지면 남북한 뿐 아니라 수많은 해외 동포 학자들과 기업인들까지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 동북아시아 연합을 이루고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중국 일본과 함께 세계 역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약하는 기회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이 의미 있는 일에 합심하여 다 함께 동참합시다. 그리고 왜곡된 역사를 바꾸고 회복하는 그 일의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평양과기대는 민족 화해운동입니다.

평양과기대는 민족 회복운동입니다.

평양과기대는 민족 통일운동입니다.

평양과기대는 민족 번영운동입니다.

≡ 필자소개 ≡

송 재 호



1979년: 서울대학교 Physics&Computer Science (공학사)

1986년: University of California Applied Physics (공학석사)

1990년: University of California Applied Physics (공학박사)

2007년 6월~2007년 11월: 한국과학기술

슬원 공과대학 전자전산학부 방문교수, BK21 연구교수

2003년 2월~현재: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전자통신학부 교수

[주 관심분야] RF & Microwave Communication Engineering field, RFID(RF Identification), Bluetooth Antenna Design, RF MEMS